

제주 치매 사망률 전국서 가장 낮다

2014~2018년 치매 종류별 사망률 등 분석 결과 제주 10만명당 60.6명으로 광주보다 2.75배 낮아 국내 치매 환자 10명 중 8명 의료기관서 삶 마감

제주지역의 치매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광주에 비해 세균질 사망 차이가 있었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이 통계청의 2014~2018년 사망통계 원시자료를 토대로 60세 이상 치매 사망자 4만 5969명의 치매 종류별 사망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된 이

연구결과(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사망에 관한 연구: 2014~2018)에 의하면 5년간 전체 치매 사망자 4만 5969명을 치매 종류별로 분류한 결과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한 사망이 2만 5616명으로 전체의 56%였다. 다음은 상해 불명 치매 3%(1만 6988명), 혈관성 치매 8%(3665명) 순이었다. 특히 치료가 가장 힘든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비율이 미국(2017년 기준 46.4%)보다 높았다.

60세 이상의 치매 사망률(인구 10

만명당)은 94.1명이었다. 성별론 여성의 치매 사망률이 118.4명으로 남성(63.6명)의 1.9배였다.

치매 사망률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치매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60.6명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61.8명)·서울(70.8명)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치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인구 10만명 당 166.8명이었다. 이어 울산(131.5명)·부산(123.5명) 순이었다. 광주 시민의 치매 사망률은 제주도민의 2.75배였다. 대체로 남쪽 해안 지역의 치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치매 사망자는 사망 장소별 분포에서 미국 치매 사망자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선 60세 이상 치매 사망자의 80.4%가

의료기관에서 숨졌다. 12.5%는 요양원과 기타 장소, 7.1%는 가정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면 미국의 치매 사망자는 60.4%가 사망 장소로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을 택했다. 8.7%는 의료기관, 22.9%는 가정에서 숨을 거뒀다.

이와 함께 5년간 국내 하루 평균 치매 사망자 수는 25.2명이었다. 월별로는 1월(일평균 29.4명)·12월(29.1명)·11월(28.5명)이 많고, 6~8월은 21명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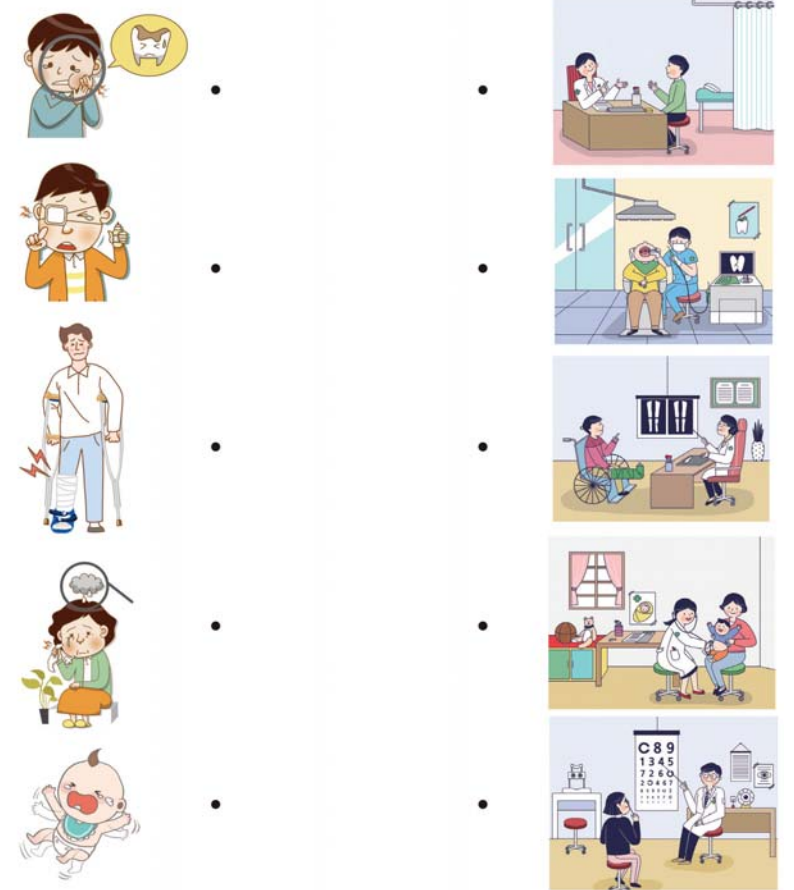
계절별로는 겨울(일평균 28.8명)이 여름(21.6명)보다 하루 7명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사망률이 18% 높는데, 대부분은 독감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관련한 사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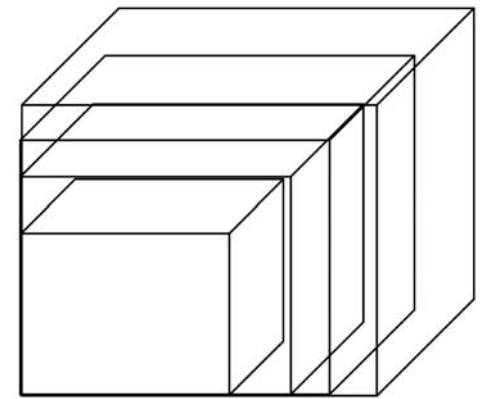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뇌동동!** <167>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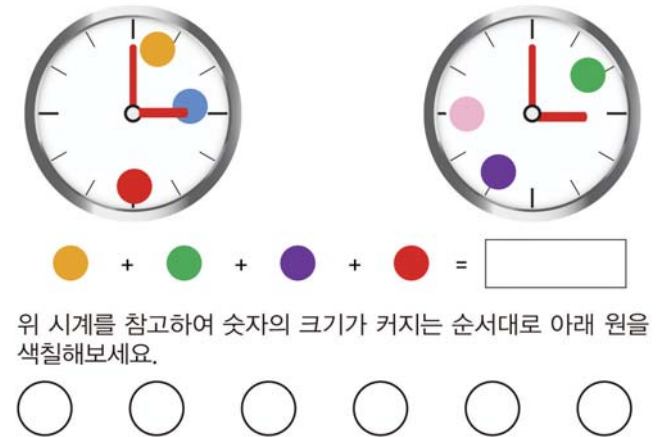
문제 1.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보세요.



문제 2. 아래 그림은 같은 모양의 도형이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도형은 몇개일까요?



문제 3. 다음 시계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귀포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본격

어제 기본·실시설계 착수 지역공동체 회복 공간 조성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공동 선정된 우리건축사사무소·(주)자우건축사사무소의 '포근한 우리동네 어울림마당, 함께하다'를 기반으로 12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선작은 인접한 육아종합지원센터·대륜동문화복지센터·서귀포소방서 등 주변 건물을 고려한 배치가 우수하고, 진입동선·주차장의 배치가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축되는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는 법환동 1666-6번지에 들어선다. 공사비 53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2039㎡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 자녀언어교실, 건강증진 사업실 등이 들어서 다양한 인구변화에 대응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된다. 2022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은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의 공간에서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합·원스톱 서비스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가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조감도.

사진=서귀포시 제공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어 시민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중기자 yjhyeon@ihalla.com

제주시, 올해 사회복지에 6600억 투입

노인 기초연금·수당 등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제주시가 올해 사회복지 업무의 목표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정하고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제주시는 노인·장애인·보육 등 올해 사회복지분야에 6626억원을 투입

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6%로, 지난해 대비 6.1% 증가했다.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 배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793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

기가구를 상대로 긴급복지 지원 기한을 올해 3월까지로 연장해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분야에는 302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노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비롯해 기초연금 확대 지원, 장수수당·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어르신 들니·보청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

상과 복지시설 이용 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 방역체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강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립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제라진식당' '안심식당' 지정 운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참여 유도를 위한 클린쿠폰제, 밥 반 공기 주문제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당 선

통합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보령협회 회장



강 경 돈
(주) 청솔건설 대표

통합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보령협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령협회
회장 이 철 호 외 임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통합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보령협회 회장



강 경 돈
(주) 청솔건설 대표
(분회 후원회장)

통합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보령협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 양 용 석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주특별자치도바독협회장



정 한 수

제주특별자치도바독협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바독협회 임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2020 제주관광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강 정 훈
(주) 비체올린 대표

2020제주관광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 제35회 건축과 동창회
회장 오 태 은 외 회원일동